

500만개 DB구축... 온라인마켓 판매 '원스톱' 해결

도전! 스타트업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 제공 브릿지존

네이버·옥션·11번가·쿠팡 등 높은 오픈마켓 문턱에 다리 역할
품질·재고관리 진행, 실시간 적용 경쟁사비 절반값, 창업 무료교육



브릿지존 전현철 대표(오른쪽)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브릿지존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이 유행이다. 적은 자본과 노동력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투잡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점은 문제다. 사업자 등록부터 웹페이지 개설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팔 수 있는 물건을 찾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브릿지존은 온라인 소매상으로 가는 다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는 회사다. 가입자에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제공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옥션, 11번가와 쿠팡 등 온라인 스토어에 원스톱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브릿지존이 경쟁사와 비교해 가장 우수한 점은 500만개에 달하는 상품 데이터베이스다. 자체적으로 도매업체를 발굴했을 뿐 아니라, 동종업계에서도 협조를 받은 덕분에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중계할 수 있게 됐다. 판매자 편의를 극대화한 인터페이스도 장점이다. 데이터베이스가 플랫폼과

연계돼 클릭 몇번 만으로 바로마켓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다. 품질과 재고 관리리는 브릿지존에서 직접 진행하고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적용한다. 물품 설명 등 세부 사항도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 회원 중에서는 일반 직장인들도 많다는 전언이다. 가격도 경쟁사보다 절반 수준인 10만~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창업 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도 브릿지존

만의 전략이다.

브릿지존 전현철 대표는 "2015년 처음 창업한 후 플랫폼을 3번이나 다시 개발해 지금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게 됐다"며 "현재 150명 정도 회원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브릿지존 창업 전 직접 오픈마켓을 운영했었다. 둘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에도 성공했다. 유통업계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새로운 노하우를 새로 축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운영사였다. 전 대표 소개로 창업했던 지인들이 운영사의 돌연 폐업으로 어려움에 빠졌던 것. 이에 따라 전 대표는 아예 플랫폼 업체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하고 2015년 회사를 처음 세우게 됐다.

어려움도 많았다. 당장 자금을 끌어모으기가 가장 어려웠다. 플랫폼도 3번이나 다시 제작해 직접 개발하는 지름에 이르렀다. 결국은 5년여 만에 탄탄한 구조를 완성해냈고, 지난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과 광주광역시 리우수기업 인증서를 받는 데에도 성공했다.

브릿지존이 단지 유통 플랫폼 사업만을 염두에 두고 세워진 회사는 아니다. 전 대표는 앞으로 오픈마켓뿐 아니라 스타트업에 특화한 상표권을 연결해주는 등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브릿지존이라는 이름 역시 사업자들에 다리를 연결해줄 것이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전 대표는 설명했다.

전 대표는 "브릿지존은 연결해주는 사업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유통관리를 개척하는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난방제품 부진 속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인기

온난 기후에 겨울가전 매출 30% ↓
'나비엔 매트' 판매 전년비 44% ↑



경동나비엔의 온수매트 '더 케어'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난방제품 매출이 푹 떨어진 가운데 경동나비엔의 온수매트가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2015년 당시 우수한 온도제어 기술력을 갖춘 온수매트 '나비엔 매트'로 시장에 포문을 연 주인공이다. 특히 첨단 기능을 접목하고,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 온수매트 '더 케어(The Care)'를 지난해 9월 출시하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다.

5월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프리미엄 온수매트 나비엔 매트는 지난해 9~11월 사이 판매량이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43.6%나 늘어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온수매트는 통상적으로 가을이나 초겨울이 성수기다. 또 2018년 기준으로 경동나비엔의 온수매트 매출액은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며 연평균 3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온난한 기후로 여타 겨울철 제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 유통업계에 따르면 예년의 경우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 모두 인기가 높았던 톱패딩 판매는 전년에 비해 최소 1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등 겨울 가전 역시 매출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동나비엔 온수매트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은 바로 '더 케어'다. 이 제품은 ▲스마트 분리난방 ▲다중 안전장치 ▲블루투스나와 와이파이를 통한 원격제어 ▲1mm 초슬림매트 등 기존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편리함과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매트 내에 흐르는 물을 스스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셀프 이온케어'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관리가 더욱 편리하다. 이는 99.9% 이상의 살균 성능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KTR)으로부터 주로 정수기에 제품에 주어지는 살균인증마크를 업계 최초로 획득하며, 매트 내 물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쾌적한 수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난방 기능도 두루 갖추고 있다. '더 케어'는 기존 제품 대비 약 40% 빠르게 온기를 전달하며, 각 생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온도를 제안하는 오토 히팅 기능도 추가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간대별로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맞춤형 온도 모드를 제공, 사용자의 수면 패턴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집 밖에서 미리 온수매트를 켜두면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온수매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서 "수면모드를 통해 자는 동안 체온의 변화에 따라 설정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중간에 깨지 않고 숙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피부에 닿는 감촉까지 고려한 감성 품질 역시 돋보인다. 커버부는 100% 순면 소재를 사용하고, 형광표백이나 염색처리를 하지 않은 원단으로 제작해 피부 자극을 줄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3일 대전 중리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조선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전통시장서 새해 첫 일정

상인 간담회, 장보기 행사 등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조봉환 이사장이 지난 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중리전통시장에 방문해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5일 밝혔다.

조 이사장은 당일 오전 11시 공단 임직원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곧바로 중리전통시장에 방문했다.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중리시장은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1기관 1시장' 자매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활력 찾기에 힘써오고 있다. /김승호 기자

조 이사장은 이날 현장에서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리전통시장 김경진 상인회장은 "새해 첫 일정으로 중리시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올해 공단과 함께 협력해 가격표시를 확산하고 신뢰받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에는 장보기 행사가 이어졌다. 장보기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떡과 과일을 구매해 대전 동구에 위치한 행복한 어르신복지관에 기부했다.

시몬스 "매트리스, 라돈걱정 마세요"

41개 품목 '라돈 안전제품 인증'

시몬스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일반 시판 매트리스(침대용) 41종 품목에 대해 '라돈안전[제품]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라돈안전[제품]인증'은 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가 공동 개발한 라돈안전 평가모델을 토대로 한 제도

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라돈안전 평가를 제시해 라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기업의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엄격한 평가 과정을 실행해 통과한 제품에만 '라돈안전[제품]인증'을 수여하고 있다.

시몬스 침대는 엄격한 관리로 완성도 및 신뢰성이 높은 자체 생산 시스템을 통해 표준협회로부터 일반시판 매트리스



스(침대용) 41종 품목에 대해 라돈안전[제품]인증을 받았다. 라돈안전 인증 평가는 측정점수(600점)와 관리시스템(400점)으로 구성됐으며, 샘플을 측정해 라돈 방출량 결과가 라돈안전 인증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제품생산업체의 경영자 인식, 조직 및 자원관리, 자재관리, 운영관리 등을 평가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정받아야 인증한다. /김승호 기자

8일부터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특허청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3개 도시에서 '2020년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15일 광주, 17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해 특허청 지원사업의 성공사례와 지원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이번 행사에는 지식재산 창출 사업 5개, 지식재산 보호 사업 2개, 지식재산 활용 사업 3개로 총 10가지 사업이 소개된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한 지식재산권을 선점하고 보호받는 일이 중요하다"며 "특허청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